

‘상상타이머’, 유쾌한 감성으로 담아낸 시간의 풍경

김종일 ‘Imagination timer-想像타이머’展...내일부터 서울 G&J갤러리

‘은유와상징’ 기계 미학·현대 감성 담아낸 60여 점 작품 선봬

19세기 증기기관 시대, 기계미학을 바탕으로 한 공상과학적 세계관 ‘스팀펑크(Steampunk)’. 기계 부품, 태엽 시계의 톱니바퀴, 새와 물고기가 한데 어우러진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상상의 동력원으로 작동하며, 현실과 비현실이 맞물리는 세계를 구성한다.

회화 전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김종일 작가가 ‘Imagination timer-想像타이머’를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전시는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3층 G&J갤러리에서 열린다. 총 6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김종일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며, 대학 시절부터 ‘스팀펑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자유와 다양성, 감성과 공감의 세계를 그려왔다.

그의 작품은 시간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탐구하며, 유년기의 호기심을 잃지 않은 채 꾸준히 이어온 창작의 궤적을 보여준다.

작업은 습관적 낙서에서 출발한다. 나무판 위에 여러 레이어를 정교하게

재단하고 사포질과 채색을 거쳐 완성된다. 이 과정을 통해 작가는 현실과 상상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장치를 구축하고, 날개 달린 물고기나 하늘을 나는 상상의 존재를 통해 삶의 여정을 환상적으로 전환시킨다.

작가는 “낙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유의 여백에서 태어난 질문의 선”이라며 “이 선들이 쌓여 ‘상상타이머’를 돌리는 태엽이 됐다”고 말한다.

그는 작품을 ‘상상을 자라게 하는 기계장치’로 정의하며, 바퀴와 톱니가 맞물려 움직이듯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이 연결될 때 비로소 새로운 상상의 세계가 열린다고 본다.

그에게 ‘상상’은 정교한 기계 언어이자 내면의 사유를 조립하는 구조다.

톱니바퀴는 세계의 은유이자 관계의 상징으로, 맞물림을 통해 움직이고 서로의 힘을 빌려 더 큰 장치를 작동시킨다. 이는 곧 ‘어떤 것도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다’는 작가의 철학과도 맞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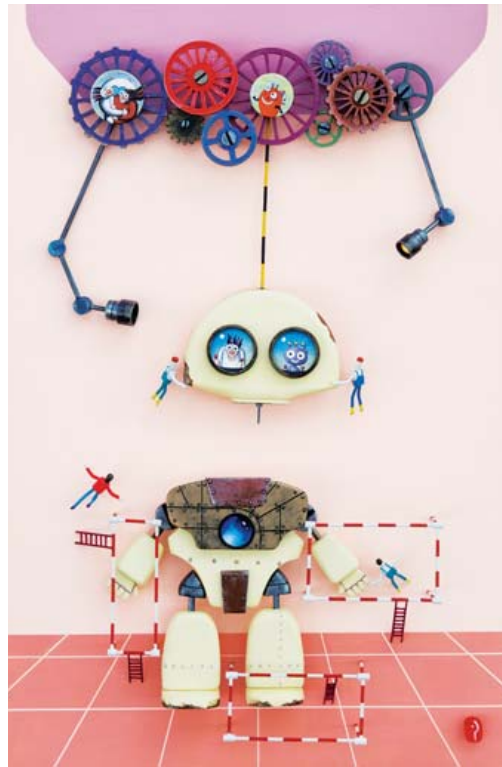
작가의 작품에는 서로 다른 세계가 공존한다.



‘상상타이머’

물고기와 새, 낮과 밤, 음악과 미술이 한 화면 안에서 혼성되며,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유쾌한 전복’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이를 “다름과 다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의미가 솟아나는 창조의 출발점”이라 설



‘상상타이머’

명한다. 또한 그의 작품은 기억을 재생하고 감정을 조립하는 장치처럼 작동한다. 나무를 자르고 이어 붙이는 과정 속에 기억의 무게와 반복되는 시간의 압력이 스며 있으며, 어린 시절의 시선이 다



‘상상타이머’

시 현재로 소환된다. 작가는 이를 ‘감정수리소 같은 영역’이라 표현하며 “상상은 시간을 관통하고 이미지는 공간을 뚫고 나온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찾그릇에 뜬 달, 도예의 온기를 담다

김기현·정우식 2인전
30일까지 광주예당 갤러리

모두가 앞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찾그릇에 비친 달처럼 잔잔한 빛을 머금고 내면의 고요한 울림을 느껴보는 전시가 마련됐다.

도예가 김기현·정우식 2인전 ‘찾그릇에 뜬 달’이 오는 30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전통과 자연의 미학이 담긴 달항아리와 다기(茶器)를 통해 도예가들의 섬세한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삶의 깊이와 여유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도예가 김기현은 40여 년간 전통 도자기의 현대적 계승에 힘써온 작가로, 최근에는 달항아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의 달항아리는 조선시대 금사리 가마의 전통 기법을 기반으로, 흙과 불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흔적과 여백의 미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특히 이 달항아리는 두 개의 사발로 붙이는 엷다지 기법으로 제작되며, 구조적 형성 과정에서 비롯된 비



정우식작 '10월 백자토, 청자토'(왼쪽)와 김기현작 '무등산 달항아리'

정형성이 달항아리만의 독보적 아름다움을 이 끌어낸다.

도예가 정우식은 다관, 숙우, 찻잔 등 전통 차도구를 다양한 기법과 문양으로 구현해 도예의 멋을 보여준다.

그의 차도구는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을 상징하는 12세트로 구성되며, 백자토와 청자토를 사용해 서로 다른 색감과 질감을 표현했다. 여기에 양각, 철화, 분청 등 전통 기법을 더해 다



재료온 미감을 완성했다.

두 작가는 도예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각기 다른 감각과 손끝으로 그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비움과 채움, 형태와 온도, 흙과 불의 만남 속에서 두 작가는 저마다의 시선으로 삶과 자연을 작품에 담아낸다.

서로 다른 걸 가운데 그들의 작업은 모두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사유의 깊이로 맞닿아 있다. /최명진 기자

‘살아 있음’의 의미, 회화로 풀다

전남대 서양화 전공 청년작가 4인전...13일까지 수하갤러리

삶의 사소한 순간에서 느껴지는 ‘살아 있음’의 의미를 회화로 풀어낸 전시가 열린다.

수하갤러리(동구 동명동 158-4)는 오는 13일까지 전남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전공 청년작가 4인 그룹전 ‘나는 오늘도 살구 있다 - I'm Apricot-ing Today Too’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상의 달콤하고도 찰나적인 순간 속에서 존재의 감각을 탐구하며, 각 작가의 고유한 회화 언어로 ‘살아 있음’을 표현한다.

참여 작가는 이주휴·임은결·정예연·허은서로 모두 전남대학교 서양화전공 소속 청년작가들이다.

전시 제목의 ‘Apricot-ing’은 ‘살구’와 ‘살고 있다’를 결합한 말로, 작고 달콤한 삶의 감각을 상징한다. 작가들은 살아간다는 행위를 ‘달고 신 살구 한입처럼, 찰나의 순간 속에서 존재를 맞보는 일’로 비유한다.

작가들은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마치 살구처럼 작고 달콤한 순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와 우리라는 관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맞본다”고 이야기한다. 작품을 통해 삶의 기쁨과 관계의 온기를 전하는 것이다.

장하경 수하갤러리 대표는 “인간과 삶, 존재의 이유를 일상의 사소한 행복과 은유적 감각 속에서 되짚는 전시”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임은결작 '충전'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2017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우수농산물브랜드 인증
그린알로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인증
일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 300mg 함유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 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